

SK 텔레콤, 2018 년 3 분기 실적 발표

- 매출 4 조 1,864 억원, 영업이익 3,041 억원, 순이익 1 조 498 억원
- 전 분기 대비 매출 0.8% 증가, 영업이익 12.3% 감소, 순이익 14.8% 증가
- 통신비 부담 경감 위해 요금제 · 로밍 등 대폭 개편
- 국내 최초 5G 장비 공급사 선정 등 5G 상용화 위한 경쟁우위 확보
- IPTV 매출 전년 대비 26.3% 증가 등 미디어 사업 성장세 지속
- ADT 캡스 인수 완료, SK 인포섹 자회사 편입 등 종합 ICT 기업으로 발돋움

[2018.10.30]

SK 텔레콤(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 년 3 분기 매출 4 조 1,864 억원, 영업이익 3,041 억원, 순이익 1 조 498 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 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 22.5% 줄었다. 이동통신사업 수익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및 할인율 상승(20% → 25%로 상향),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초로 분기 기준 1 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SK 하이닉스의 기록적인 성과에 따른 지분법 이익 영향이며, 지난해보다 32.4% 증가했다.

직전 분기 비교 시 연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0.8%, 14.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2.3% 감소했다.

SK 텔레콤은 단기 실적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금제 · 약정제도 · 로밍 · 멤버십 등 이동통신 전 영역에 걸쳐 고객가치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SK 텔레콤은 지난 3 분기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제와 로밍 서비스 등을 대폭 개편했다.

지난 7 월 출시한 'T 플랜'은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가족 결합 혜택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10 월 말 기준 300 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8 월에 출시한 1020 세대 맞춤형 요금제 '0 플랜'의 가입자도 요금제 출시 두 달 만에 30 만 명을 넘었다.

'T 콰·사이판패스'는 콰·사이판에서 국내 요금 수준으로 데이터, 음성을 이용하고 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 기존 로밍 서비스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속적인 고객가치혁신 활동 결과 SK 텔레콤은 국내 3 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장 기간 연속 1 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SK 텔레콤은 KCSI(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21 년 · NCSI(국가고객만족도) 21 년 ·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19 년 연속 1 위를 달성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임을 재입증한 것이다.

SK 텔레콤은 세계 최고 수준의 5G 품질 구현을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SK 텔레콤은 지난 9 월 국내 최초로 5G 장비 공급사를 선정한 이후 ▲5G 상용장비 활용 데이터 송수신(퍼스트콜) 시연 ▲다른 제조사 간 5G 장비 연동 등을 잇따라 성공했다. 이 외에도 SK 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과 혁신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옥수수 소셜 VR' 등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도 출시하는 등 5G 생태계 확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미디어 사업은 지난 3 분기 매출 및 가입자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며, SK 텔레콤의 확고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했다. IPTV 매출은 기존 회계기준으로 3,228 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다. 9 월 말 기준 모바일 IPTV '옥수수'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6% 늘어난 946 만 명, '옥수수' 월 순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한 700 만 명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SK 텔레콤은 ADT 캡스 인수 완료, SK 인포섹 자회사 편입, 11 번가 투자 유치 및 분사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며 종합 ICT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SK 텔레콤은 물리보안에서 정보보안까지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국내 보안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5G 기반 신규 보안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발굴해 보안사업을 신규 성장 핵심 동력으로 키워낼 방침이다.

11 번가는 지난 9 월 신설 법인으로 분사하며, ▲5,000 억원 규모의 투자 자금 유치 ▲SK 텔레콤의 New ICT 기술과 결합한 획기적 서비스 개발 등 e 커머스 1 등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SK 텔레콤은 신규 디바이스 출시, 생태계 확대를 위한 오픈 플랫폼 공개 등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SK 텔레콤은 지난 9 월 'AI R&D 와 사업 조직'을 통합한 'AI 센터'를 편제하고 AI 관련 석학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과 인력도 재정비했다.

SK 텔레콤 유영상 코퍼레이트(Corporate)센터장은 “어려운 이동통신사업 환경에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 전 영역에서 진정성 있는 혁신을 지속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회사의 건강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참고자료 :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억원)

구분	18 년 3Q (IFRS15)	18 년 2Q (IFRS15)	증감률 (QoQ)	17 년 3Q (舊)	증감률 (YoY)	18 년 3Q (舊)	증감률 (YoY)
매출	41,864	41,543	0.8%	44,427	△5.8%	41,990	△5.5%
영업익	3,041	3,469	△12.3%	3,924	△22.5%	3,053	△22.2%
당기순익	10,498	9,143	14.8%	7,930	32.4%	10,501	32.4%

* K-IFRS 감사전 기준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억원)

구분	18 년 3Q (IFRS15)	18 년 2Q (IFRS15)	증감률 (QoQ)	17 년 3Q (舊)	증감률 (YoY)	18 년 3Q (舊)	증감률 (YoY)
매출	29,256	29,418	△0.6%	31,565	△7.3%	29,287	△7.2%
영업익	3,106	3,682	△15.7%	4,207	△26.2%	3,270	△22.3%
당기순익	1,833	2,198	△16.6%	4,787	△61.7%	1,980	△58.6%

* K-IFRS 감사전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감소는 SK 차이나 현물출자로 인한 기저효과

<끝>